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

요약

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급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에는 30만 명에도 미달할 것으로 보임. 국민총소득 1조 달러 이상인 주요 16개국 중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캐나다, 호주, 스페인 등이 3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, 북한도 연 30만 명 대의 출생아가 태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규모가 30만 명 또는 그 이하라는 것은 이들 국가들보다도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.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

-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20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30만 명에 미달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음
 - 2020년 1~11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간 28.1만 명보다 9.8% 감소하여, 25.4만 명에 그침
 - 2019년 출생아 수가 30.3만 명이었고 2020년 1~11월 기간 월평균 출생아 수가 2.3만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한 다면 2020년의 출생아 수는 30만 명에 크게 미달할 것이 확실해 보임
- 본 보고서는 ‘30만 명이라는 출생아 수’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국제 비교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재조명하고자 함
 - 국민총소득이 1조 달러를 초과하는 주요 16개국¹⁾의 출생아 수를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주요국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보고자 함
 -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함께 경제 규모 순위를 놓고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들로서 인적자본이나 물적자본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라고 할 수 있음
 - 출생아 수는 미래의 인적자본을 통해서 경제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라는 측면에서 비교의 의의가 있을 것임
 - 남북한 사이에 남한은 일반적으로 북한보다 인구가 많은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, 출생아 수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하고자 함
 - 본고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의 출생아 수는 모두 국제 연합(United Nations)의 인구 통계와 전망 자료²⁾를 기초로 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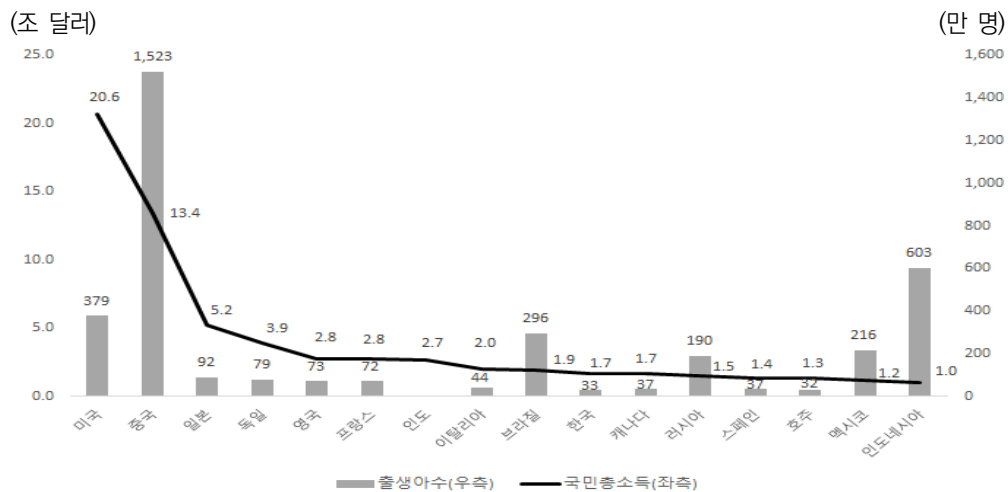
1) 국민총소득(GNI: Gross National Income)은 한나라 국민의 소득 합계이며, 1인당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기준이 됨. 한 국가의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국내총생산(GDP: Gross Domestic Product)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. 본고의 GNI는 세계은행 자료로서 각 년도의 최근 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한 Atlas법을 기초로 달러 기준으로 산출된 값임

2) 각 국의 인구통계는 국제 연합(United Nations)의 인구 연감(Demographic Yearbook 2019), 인구 중요 통계(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Report), 세계 인구 추계(World Population 2019)의 중위 기준(Medium variant) 추계를 기초로 하였음

○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이 1조 달러를 초과하는 16개국 중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서 10위 수준이나, 출생아 수는 호주와 더불어 최하위를 기록함(〈그림 1〉 참조)

- 국민총소득(2018년 기준)이 1조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, 중국, 일본 등 총 16개국이며, 우리나라는 전체 10위에 해당됨
 - 국민총소득 1조 이상 16개국은 미국처럼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 수 모두 많은 국가도 있으나, 서유럽과 같이 인구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와 중국, 인도, 브라질, 멕시코,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인구 규모가 큰 국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
-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약 32.7만 명으로 호주(약 31.5만 명)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,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도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최하위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음
 - 국민총소득 1조 이상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, 캐나다(37.2만 명), 스페인(37.1만 명) 등 4개국이 30만 명대로 출생아 규모에 있어서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음
 - 이들 국가들의 출생아 수 변화는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가 출생아 수에 있어서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

〈그림 1〉 국민총소득 1조 이상 국가의 총소득과 출생아 수



주: 1) 인도는 카슈미르 등 통계 취합이 곤란한 지역의 문제로 UN의 출생아 수 통계가 부재함
 2) 브라질(2017년), 러시아(2013년), 인도네시아(2010년) 등은 최신 자료의 한계가 있었으나, 이들 국가는 모두 출생아 수 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크게 추월하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에는 영향이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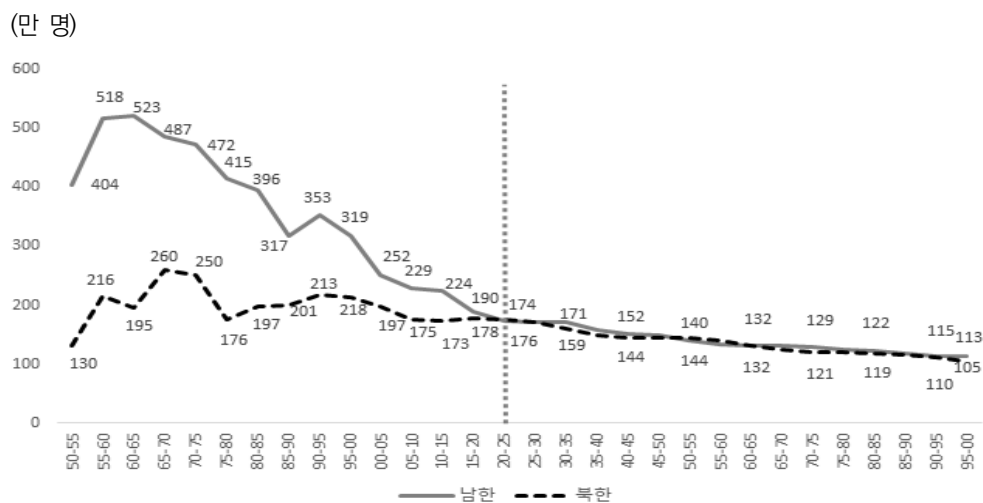
자료: UN, 세계은행

○ 남한은 북한³⁾보다 출생아 수가 많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으나, 90년대 이후 급감하여 최근 30만 명대에 진입하면서 양자 간 출생아 규모는 유사지고 있음(〈그림 2〉 참조)

3) 북한의 연도별 출생아 수 통계는 인구 연감(Demographic Yearbook 2019)이나 인구 중요 통계(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Report)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구 추계(World Population 2019)의 5년 단위 인구 추계 자료를 활용하였음

- 50, 60, 70년대에 걸쳐 남한의 출생아 수는 북한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나, 90년대 이후 이러한 격차가 급속히 축소되면서 2015~2020년에는 연평균 출생아 수가 남북한 모두 30만 명대로 나타남
- UN의 인구 전망(중위 기준)에 따르면 2020~2025년 중 북한의 출생아 수는 약 176만 명으로 추계되어 남한의 약 174만 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- 그러나 남한의 출생아 수는 2019년에도 급락세를 보이며 약 30만 명 수준(5년 기준 150만 명)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생아 수 변화가 안정적인 북한에 비해 이미 작은 규모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음
 - UN은 2020년 이후 남북한 간 출생아 수가 장기간 상호 매우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에 2040~2045년 수준(5년간 152만 명)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음

〈그림 2〉 남북한 5년 단위 출생아 수 추이와 전망



주: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출생아 수는 크기와 상관없이 남한을 상단에 북한을 하단에 기입하였음
 자료: UN

-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0만 명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 규모 1조 달러 이상의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임과 더불어 북한보다도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
 - 특히,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UN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출생아 수 변동이 안정적인 호주나 북한에 비해 이미 작은 규모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음
 - 특히, 호주나 북한은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 규모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음
 - 출생아 수가 가장 적다는 것은 미래의 인적자본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, 우리나라는 주요 16개국 중 인적자본의 부족에 따른 성장의 한계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
-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라면 이에 대응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분야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